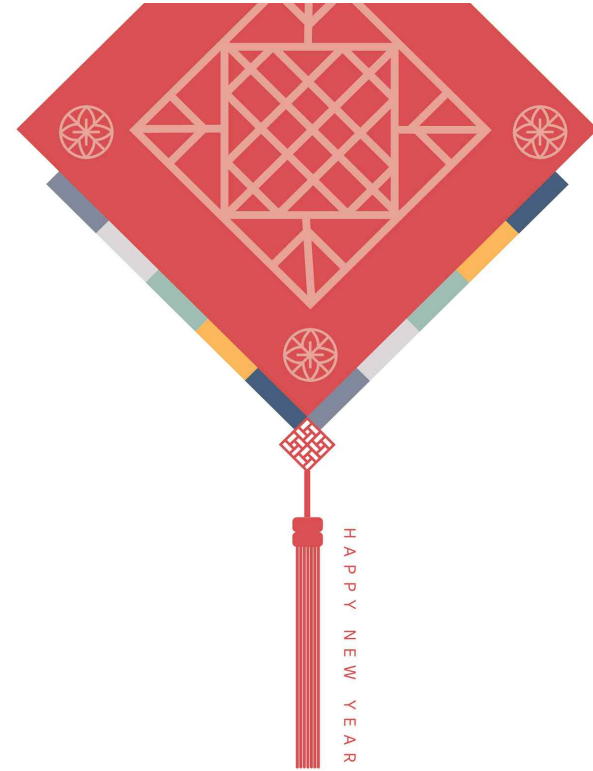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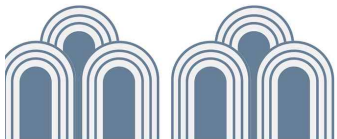
- 1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2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2024 설 가정예배 순서지

| 행복하고 복된 설날 되세요 |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기도 말은 이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이 힘들 때나 기쁨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욕기 8:5-8 다 같이

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8 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말 씬 미약한 시작, 창대한 나중 다 같이

미약한 시작, 창대한 나중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시작은 보잘 것 없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라는 희망찬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의 죄는 보잘 것 없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잘 될 거라는 희망찬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1.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5절)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 이를 수 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옆드려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찾을 때가 있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입니다. 발생한 문제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원하는가?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때가 어떠한지 나를 찾고 간구하라. 그리할 때 미약한 시작이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2.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6절)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모습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값비싼 금 그릇, 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맙시다. 미약한 시작이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대한 나중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3. 묻고 배워야 합니다. (8절)

나이가 들수록 물음표가 사라집니다. 온통 마침표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다보니 묻고 배우는 것은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의 3요소가 있습니다. ‘물음, 들음,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물음이 있을 때 우리는 듣게 되고, 들음이 있을 때 우리의 행함은 보다 균형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미약한 시작이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대한 나중이 되길 원합니다. 100% 옳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의 방법으로 이미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간구하며, 순결하고 정직함으로, 묻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